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세바스티아의 성 40인의 순교자

심판 주일(금육 주일)

성 글레오니프스 순교자

성 테오도리토스 사제순교자

제7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인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금육 주일 시기송 / 220, B 271
- 사도경 : I 고린토 8,8-9,2 / 봉독서 432
- 복음경 : 마태오 25,31-46 / 136, B 9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세바스티아의 성 40인의 순교자

우리 정교회는 그리스도교 박해 시기 영웅적인 순교의 희생을 당하신 세바스티아의 40인의 순교자들(4세기)을 3월 9일 축일로 기념합니다. 교회의 여러 위대한 교부들은 인류사에서 길이 기억될 영웅적 순교의 행동을 보여준 이들의 순교에 대해 찬사의 글을 쓰셨습니다. 순교 성인들께서는 차가운 북풍이 부는 한 겨울 밤에 세바스티아의 꿈꿨던 언 호수 위에 맨 몸으로 서있는 형벌을 당

하셨습니다. 성 대 바실리오스께서는 성인들을 칭송하는 글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은 혹독하지만, 천국은 온화하다. 얼어붙은 몸은 고통스럽지만, 안식은 기쁘다.”

또한 니사의 대주교 성 그레고리오스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처절한 투쟁을 하지만…… 영혼은 순교의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춤을 춥니다.”

최후의 심판을 예시하는 달란트의 비유

부활절 준비를 위한 트리오디온 기간 중에 맞이하는 ‘최후의 심판’ 혹은 ‘금욕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하고 선한 종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 것이고 악하고 고약한 종은 지옥에서 불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최후의 심판 결과를 예언하셨다. 험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착하고 선한 종이요, 이들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한 사람이나 무시한 종은 악하고 고약한 종이다.

온 인류가 맞이하는 최후의 심판 결과는 어떠한 결말을 각 사람이 맞게 될 것임을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 일화 중에 하나인 달란트의 비유가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최후의 심판 결과이다.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여행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얼마 후에 그가 돌아와서 그의 종과 셈을 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은 그 두 배의 달란트를 벌여 주인에게 바쳤다. 그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너희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만찬에 참여하여 즐기고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이 주인은 주님을 뜻함으로 나의 집,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라고 칭찬과 함께 보답을 하였다. 그러나 1달란트를 맡게 된 종은 땅 속에 묻어 버리고 딴 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주인에게 1달란트 그대로를 돌려드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노한 주인은 달란트에 대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치고 어두운 감옥에 쳐 넣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더 설명하자면 다음

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그 액수로 보아 여러 장성한 성인들이 평생 벌어도 얻지 못할 엄청난 재물이다. 이러한 달란트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즉 하느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총을 의미한다. 우리가 성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받은 은총이 바로 달란트와 같은 것이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은총을 고르게 베푸신 것과 같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그 즉시로 열심히 일을 하여 그 갑절을 만든 것처럼, 주님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그 즉시로 열심히 일하여 주님께 속한 은총을 그 갑절의 은총으로 갖추어야 한다. 종의 손으로 주님께 속한 달란트를 벌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종의 신분인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하느님처럼 되는 축복된 하늘나라를 맡아 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총만큼 더 열심히 선덕과 덕망의 일을 해야 한다.

1달란트를 맡게 된 종은 주인을 믿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땅에 묻고 그의 자유로운 삶을 달란트를 위해서가 아닌 세속에 몰두하며 그 귀한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다. 그 결과 그는 주인으로부터 간사하고 악하며 게으른 종으로 야단맞고 갇고 있던 1달란트는 빼앗기고 있는 종에게 주어지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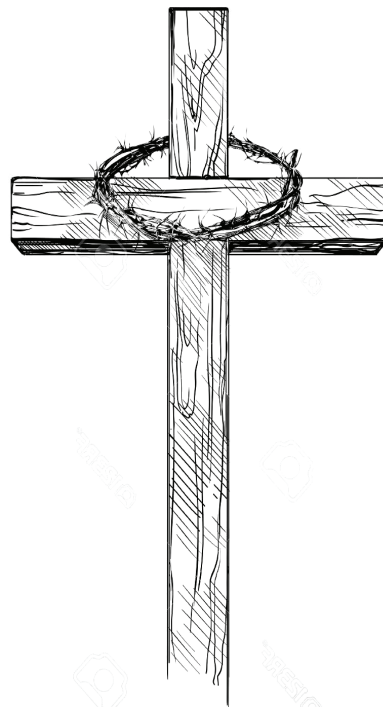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이웃이 받은 주님의 은총을 비교하여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비록 내 이웃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

☞ 3면에 계속

누군가에게 아래의 것을 주는 당신은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1. 적에게 용서를
2. 친구에게 진실한 마음을
3.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를
4.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에겐 관용을
5. 아버지께 순종을
6. 어머니에게 애정을
7. 자기 자신에겐 자기존중(감)을
8. 이웃에게 좋은 태도를
9.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이에겐 이해를
10.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신의 능력을 땅에 묻고 성덕의 삶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 마치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상처 입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완전한 자선 덕망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금욕 주일 혹은 최후의 심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금식과 자선에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가 받은 주님의 은총만큼 남의 은총과 비유하지 말고 열심히 영성 생활에 몰두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다.

“착하고 충성되고 믿음이 강한 종아,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일하자.”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소 식

대교구

■참회의 만과

대사순절 전 주일인 다음 주일(용서의 주일, 3월 10일)엔 성찬예배 후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대사순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합시다.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육류를 금합니다

대사순절을 들어가기 전 주간인 이번 주간은 육류는 금하고, 생선과 달걀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장년회 봄 단합대회

오는 3월 3일 주일 성찬예배와 사랑의 오찬 후 한양도성 성곽길(2코스, 낙산 구간) 트레킹을 할 것입니다. 둘레길 트레킹 후에는 기념 촬영 및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비 신자 교리반 봄 학기

「예비 신자 교리반 봄 학기」가 3월 17일 주일 예배와 점심 식사 후 개강합니다. 3월 17일부터 6월 중순까지 12주에 걸쳐 매주 주일 점심 식사 후 모임이 이뤄집니다.

봄 학기에는 정교회의 신앙과 교리에 관하여 강의가 진행되며, 교재는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저술하신 『정교회 교리서』입니다. 정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정교회 신앙과 교리를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성당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진급식

오늘 성찬예배 후 새 학년을 맞이하는 주일학교 진급식이 있겠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유익한 새 학년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